

▶ 아동

위축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사례 연구

조 여 정*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본 사례 연구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위축아동에게 언어표현을 시각화하고 미술치료를 구조화하여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만 8세 남아로 소아정신과에서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짜증내는 정도의 표현만 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학원도 지속적으로 다니지를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여 의뢰되었다. 치료시간은 주1회 40분씩 총 32회기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아동의 문제행동 증후군의 하위부위인 내적문제 척도 위축과 주의집중문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고 자기표현 평정척도(Self Expression)를 사용하였고 HTP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CBCL에서 내재화된 문제가 72T로 임상군에 속하였는데 특히 위축이 88T로 매우 높았다. 위축에서 사전 88T에서 사후 62T로 크게 낮아지고 주의집중문제는 사전 78T에서 사후 67T로 낮아져 점수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표현 평정척도(Self Expression)에서는 사전 32점에서 사후 58점으로 높아져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T점수화 하지 않았음).

셋째, HTP에서는 사전 실시된 검사에서 아동은 머뭇거리면서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여 강박적인 모습을 드러내었고 문을 아주 작게 그리고 상들이 경직된 선으로 화면하단에 작게 그려졌다. 이것은 불안정감과 위축된 자아상을 보여주었다. 사후에 실시된 검사에서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리고 지우개 사용이 없었고 나무의 옹이가 줄어들었고 전체 화면에 상이 적절한 크기로 자리잡았으며 안정된 자아상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위축되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내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표출시키기 위해 미술재료와 매체를 다양하게 제시하거나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러한 미술활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향상 시켜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고 주의집중도를 높였다.